여가스포츠로서의 당구, 프로스포츠로서의 당구



신선윤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강사
shallong@daum.net

혼밥의 시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경쟁 스포츠

혼자 밥 먹는 걸 두려워하는 것을 뜻하는 'solomangarephobia'라는 단어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 혼자 밥먹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을 뜻하며 혼자 밥을 먹는 자신을 생각할 사람들의 시선을 매우 의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는 혼밥(혼자 밥 먹기), 혼술(혼자 술 마시기), 혼창(혼자 노래 부르기), 혼영(혼자 영화 보기), 혼행(혼자 여행하기), 혼캠(혼자 캠핑 가기), 혼놀(혼자 놀기), 혼클(혼자 클럽 가기) 등 홀로 수행해 내는 생활 속에서의 행동양식이 전혀 놀랍거나 새롭지 않은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이러한 현상은 혼자서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는다거나 괴짜라는 시선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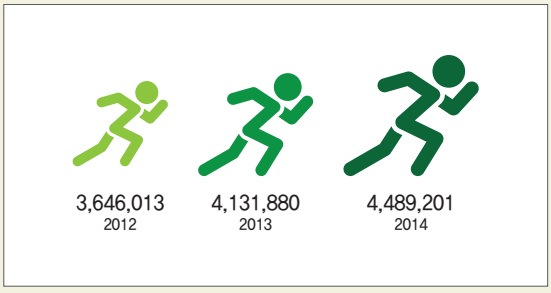


2016년 11월 조선닷컴에 등장한 "혼밥 · 혼술 하는 나홀로족의 이유 있는 항변" 이라는 제목의 한 칼럼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혼자 있으면 뇌가 긴장을 풀어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음식과 술맛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고, 영화에도 더 속속들이 몰입할 수 있다. 또 "이것은 싫다. 저것도 별로다" 라며 징징대고 불평하는 동반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키는 걸 내 마음대로 골라서 유유히 만끽할 수 있다." 라며 나홀로족이 가지는 행동양식만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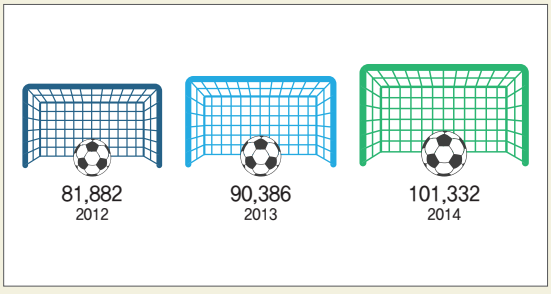
그러면 스포츠에서는 어떠할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스포츠는 참여의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내가 직접 참여해서 스포츠를 즐기며, 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스포츠'와 본인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어 하는 스포츠 경기를 직접 또는 매체를 통해 시청 · 관람한다는 의미를 통칭하여 분류되는 '관람스포츠'가 있다. 주위에는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참여나 관람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두 가지의 형태 즉 참여와 관람을 모두 즐기는 경우를 왕왕 발견할 수 있다. 설사 스포츠에 빠져있는 앞서 언급한 그런 스포츠 매니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날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스포츠와 관련된 뉴스들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도 스포츠라는 존재를 인지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스포츠 참여 인구는(프로스포츠 관중 및 생활체육 참여자 등)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생활체육관련 참여인의 수 변화와 동호인 클럽의 변화를 나타낸 아래 [그림1]과 [그림2]는 이러한 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생활체육의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도 비교적 팀을 이뤄서 운동 활동이 이루어지는 종목들은 전통적으로 축구, 야구, 농구, 배구와 같은 팀 스포츠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혼밥의 시대인 오늘날 홀로 즐길 수 있는 형태의 등산, 요가, 권투, 각종 신체적 미(美를) 가꾸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피트니스 운동 등의 폭발적 인기는 오늘날의 사회적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이 확장되어 가는데 있어서 그 방향을 가늠케 한다.



[그림 1] 생활체육 참여인(명)



[그림 2]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개)

스포츠산업으로서의 당구의 비상(飛上)

LG 유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5개월에 걸쳐 시장 조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21일 대한당구연맹과 "LG 유플러스컵 3쿠션 마스터스 대회" 개최에 따른 협약식을 가졌다. LG 유플러스는 이러한 스포츠 대회의 신설을 결정하고 후원하게 된 결정적 근거로, 당구의 마케팅 가치는 타 스포츠와 비교할 수 없는 국내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2006년 전국 1만 8,639곳이던 당구장은 2014년 12월 기준 전국 2만 2,456곳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당구장의 증가세와 그 접근성은 소비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스폰서십 참여에 매력적인 요인이라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정식의 제도권 스포츠라는 점을 꼽았다. 또한 시청률 조사기관

인 TNMS가 발표한 2014년 자료에 따르면, 미디어 가치 또한 4대 프로스포츠 가운데서도 당구(0.368%)의 시청률을 넘는 종목은 야구(KBO리그, 0.953%)와 배구(V리그, 0.824%)뿐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스포츠로서의 공신력과 함께 대중의 관심도에 있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스포츠종목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당구 종목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당구라는 종목은 스포츠로 마케팅 측면의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LG 유플러스 관계자는 대회의 개최 확정과 함께 인터뷰를 통해 "처음 당구 이야기를 할 때는 스포츠라기보다 대중적 레저 활동으로 생각했지만 마케팅 플랫폼으로 접근했더니 그 상식이 크게 달라졌다, 왜 그 동안 기업들이 당구라는 컨텐츠를 활용하지 못했고, 우리는 왜 이제야 했는지 아쉬울 정도"라고 말하며, 레드오션이 돼버린 4대 프로스포츠를 제외하고, 당구가 아직은 '미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업의 참여를 통한 대회의 개최 등을 통해 당구라는 스포츠는 '완생'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국민 스포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 당구 100년사에 있어서 이처럼 국내 대기업에서 당구대회를 기획하고 협찬하는 것은 처음이다. 1,200만 동호인을 가진 대중적인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스포츠로서 자리 잡을 수 없었던 다양한 제약의 요인들이 많았던 탓일 것이다.

SBS스포츠와 당구전문채널 빌리어즈TV가 공동 중계한(2015년 11월 10일~12일)여의도 IFC몰에서 열린 제1회 '2015 LG 유플러스컵 3쿠션 마스터스 대회'의 총 상금은 당구 대회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1,1000만원이며 우승 상금 5,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보통 월드컵 대회 우승 상금의 7, 8배에 이르는 액수다. 한 해가 지난 2016년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열린 '2016 LG U+ 컵 3쿠션 마스터스' 대회 결승전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충복 선수가 국내 최대 우승 상금인 7,000만원을 받게 됐다. 총상금 1억 6000만 원으로 총 상금은 전년도에 비해 5천만 원 증액되었으며, 대회 주관 방송사인 빌리어즈TV는 15경기 모두를 생중계했다. 특히 네이버에 영상 클립으로 제공된 이번 대회의 최성원 선수의 묘기에 가까운 난구 풀이 장면은 6만 4870번의 클릭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세계적인 수준의 상금을 내건 이상의 대회에서 두 차례 모두 국내 선수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벌어진 우리만의 잔치가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할 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회의 참가자 면면을 살펴본다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2015년 우승을 거머쥔 강동궁(당시 세계 랭킹 22위, 국내 랭킹도 7위)은 4강전에서 세계 1위 토브욘 브롬달(스웨덴, 2015 구리 월드컵 우승자 다니엘 산체스(스페인) 등을 예선에 모두 이기고 올라옴)을 상대로 21이닝 만에 40점을 달성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상대로는 4강전에서 또 다른 4대 천왕인 프레데릭 쿠드롱(벨기에)을 40-35로 꺾고 올라 온 세계 2위 야스퍼스를 만나서 최종 우승을 거머쥔 것이다. 2016년에 치러진 2016 LG 유플러스컵 3쿠션 마스터스 대회에서는 국내 당구 대회 역사상 최대 상금 규모에 걸맞게 초청되는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하였다. 2015년 디펜딩 챔피언 강동궁(동양기계)과 세계 랭킹 1위 '당구황제' 토브욤 브롬달(스웨덴), 세계랭킹

기준으로 각 대륙별(아프리카, 미주대륙, 유럽) 1위 선수들이 초청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세계주니어 3연패에 빛나는 '당구천재' 김행직(LG유플러스)과 국내랭킹 1위 조재호(서울시청) 등 톱랭커들이 대거 출전하여 자웅을 겨룬 끝에 이충복 선수가 7,000만원의 상금을 가져갔다.

비단 이러한 세계적 규모의 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선수후원 기업의 증가도 당구산업의 발전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국내 대회의 증가와 그에 따른 경기 중계 편성의 증가, 그리고 전문 당구채널이 생겨남으로 인해 선수들을 활용한 기업의 홍보를 꾀하려는 시도가 비약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중소기업들의 당구선수 후원은 지인으로서, 지인의 소개를 통한 격려금 형식의 후원의 형태를 벗어나 이제는 정식 후원계약을 맺고 선수의 구체적 행동과 의무를 적시하는 서면 계약을 동반하고 있다. 2015년 2월 보안솔루션 공급 전문기업 크로니아이티(http://www.cronyit.co.kr)는 국내 3쿠션 여자랭킹 1위, 2014년 10월 터키에서 열린 세계 여자 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거머쥔 바 있는 이신영 선수와의 후원협약 체결식을 통해, 1년간 각종 대회에서 크로니아이티의 로고가 새겨진 경기복 착용, 지원금을 후원하게 되었다. 같은 해 6월, 3쿠션 프로선수 김율리, 김예은 자매의 후원협약 또한 이루어졌다. 1년간 김율리, 김예은 선수는 출전하는 모든 경기에 당사의 로고와 사명이 첨부된 패치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후원받게 되며, 각종 대회에서 우승 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처럼 여자선수들에 후원은 2012년에 있었던 세계여자프로당구연맹(WPBA) 랭킹 1위 인천당구연맹 소속의 대한민국 당구 국가대표 김가영 선수와 이트레이드증권과의 메인 스폰서 계약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대회에서도 회사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고 대회에 참가하고, 국내외 대회 출전을 위한 지원금을 후원 받게 된 이러한 계약은 오늘날 3쿠션의 붐을 타고 남자선수들에게까지 후원사가 늘어나도록 만든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남자 당구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구 기구 및 주변 용품 제조업체들과의 후원계약이 비 서면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후원의 형태가 보다 선진화된 프로스포츠 형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식 스폰서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구라는 종목의 스포츠가 프로스포츠로서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토대가 갖추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예로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당구대 제조사인 (주)허리우드는 최성원, 서현민, 홍진표, 이신영, 김준태 등 5명의 후원선수를 현재 거느리고 있다. 최성원 선수와 몰리나리(Molinari), 허정한 선수와 프레데터(Predator) CRM과의 후원 계약 체결 등은 국내외 당구용품 브랜드들과 세계 랭커로서의 우리나라 선수들 간의 상업적 후원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당구큐 제조 브랜드 한밭(HANBAT)의 고등학생 김행직 선수의 발굴 및 다양한 후원을 통해 세계대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후원 사실은 이미 당구계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국내 당구선수들의 이러한 프로선수로서의 후원계약과 같은 행보에 새로운 방점을 하나 찍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바로 당구 천재로 불리던 이십대 초반의 김행직 선수가 국내 거대 통신 기업인 LG U+와 후원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전까지의 후원은 사실 당구 용품 브랜드, 선수 활동 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규모의 수준에서 1년 단발성 계약이 주류를 이뤄왔었다. 이러한 대기업의 공식 후원을 받는 당구선수가 배출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라 할 수 있다. 김행직 선수는 2015년 12월 30일에 후원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6년을 시작으로 3년의 계약 기간을 갖게 된 것이다. 후원계약에 의한 선수들의 선수생활 여건의 변화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에서의 실업팀 창단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3년 충청남도에서 지방 최초로 당구실업팀이 창단되었는데 충남도청 당구실업팀은 충남당구연맹 소속 네 명의 선수들과 계약을 맺어 국내 당구의 질 향상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충남도청 당구실업팀의 선수로는 지금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으로 더욱 유명해진 포켓볼 국내랭킹 1위인 차유람 선수를 비롯하여 한상희, 조필현, 강호규 선수가 입단하였다. 이들은 연봉과 함께 훈련비 및 국제대회 참가에 대한 지원 및 장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러한 후원계약의 증가와 실업팀의 잇단 창단 등 전업 프로 당구선수로서의 생활 즉, 당구 연습에만 몰두 할 수 있는 여건의 형성은 실로 당구라는 스포츠가 프로스포츠로서도 국내에서 새로운 입지를 열어가게 될 토양이 마련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출처: shutterstock

여가스포츠로서의 프로스포츠로서의 선결 과제

당구를 잘 모르는, 태어나서 큐조차 한 번 잡아보지 않은 20대 여성이 당구장에서 아직도 흡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접하고 필자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어떤 건물 내에서도 이제는 담배 피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심지어 당구를 치는 스포츠 활동 공간에서 담배를 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박사님?" 부끄럽게도 현실은 그러하다고 대답했다. 2016년 현재 간접흡연 노출이 음식점의 40배, WHO '실외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실내 환경이 대한민국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 바로 당구장이다. 체육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 해당하지만 1,000명 이상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까닭에 당구장은 현재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금연정책포럼 최근호(2016년 9호)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6개 도시의 음식점과 피시방, 당구장 총 360개소에서 실내 공기 중 PM2.5를 측정한 결과 흡연이 허용되는 당구장의 실내 공기의 질이 압도적으로 나쁜 것으로 보고서는 밝혔다. 연구자는 "사실상 흡연이 가능한 당구장에서 독성 또는 발암물질을 포함하는 간접흡연에의 노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당구장을 출입하는 비흡연자와 음식점을 출입하는 비흡연자의 담배 관련 생체 지표를 비교하였을 때 6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 당구장에서 간접흡연 노출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연구자는 "당구장 간접흡연 노출수준 및 노출대상의 취약성을 고려하면 당구장에도 금연법이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생리학적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금연에 따른 사회 · 경제적 측면에서의 연구도 눈길을 끌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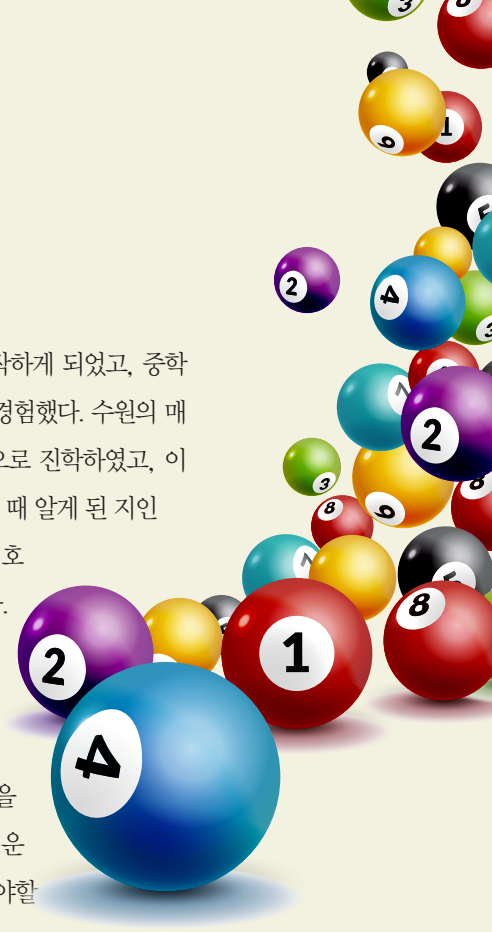
출처: shutterstock

는데, 금연구역을 확대하면 사회 · 경제적으로 이득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금연구역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분석한 연구 결과이다. 연구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흡연 금지법안 이후 음식점은 고객수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오히려 비흡연 고객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밝히는 결과는 너무도 명확히 앞으로 스포츠로서의 당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당구장 금연화로 인한 매출 저하를 우려하기 보다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의 개선을 통한 새로운 고객층, 즉 지금까지 당구장을 찾지 않은 모든 비흡연자들이 새로운 고객으로서 유입될 수 있는 활로를 찾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구장에서의 금연은 2000년대 초반부터 당구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던 주제이다. 2013년 6월 PC방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러한 결정으로 정부의 금연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았고, 음식점 역시 금연 구역이 확대돼 2015년부터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같은 실내영업장이라도 당구장과 노래방은 금연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 당시에도 흡연은 계속 가능한 구역으로 남아 사회적 논란은 계속되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2017년 11월부터 당구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들이 일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간접흡연의 걱정 없이 당구 참여자들은 여가활동을 즐기길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 김명연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구장 ·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제 1년간의 유예기간만 지나면 2017년 11월부터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림 3] Amsterdam(Netherlands) Wilhelmina Billiard Shop의 전경 및 내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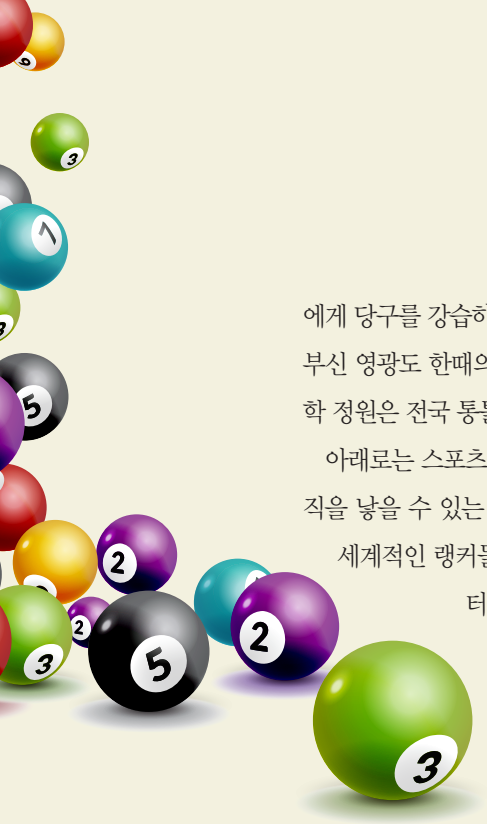


프로스포츠로의 발돋움 그리고 당구문화의 확산

'당구계의 손흥민'으로 불리는 김행직은 그의 아버지에 의해 당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나선 전국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고 전국체전 학생부 정상까지 경험했다. 수원의 매탄고에 당구부가 창설됐다는 소식에 그는 연고가 없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진학하였고, 이후 주니어 무대를 평정한 그는 꿈꾸던 2011년 한국체대 입학을 포기하고 주니어선수권 때 알게 된 지인의 소개를 통해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에 도전한다. 당시 분데스리가 1부리그 1위 팀인 호스터에크였는데 이 팀엔 현 세계랭킹 1위인 토브욘 브롬달(스웨덴)이 몸담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 출전은 경기마다 1명씩이었기에 입단 첫해 브롬달에게 밀려 경기 출전이 뜸했으나, 통산 9경기에서 8승(1패)을 기록했다. 해가 지나 브롬달보다 더 많은 출전 횟수를 기록하게 되는 김행직은 그 해 14승을 따냈다. 이러한 엘리트 운동선수의 전형을 당구 종목에서 보여 준 김행직의 스토리는 당구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국내에는 아직 찾을 수 없는 당구리그의 존재와 함께 수준별 리그제도의 운영, 그리고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 육성 시스템 등은 앞으로 우리 당구가 가야할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유럽 공동체가 가진 행정적 결속력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당구 리그가 다양한 종목(우리가 당구라고 표현하는 종목 안에는 많은 세부 종목들이 또한 존재한다. 흔히 말하는 포켓볼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에 걸쳐 활성화 되고 있다. 토브욘 브롬달을 비롯해 프레드릭 쿠드롱, 에디 먹스, 다니엘 산체스 등은 20~30년 가까이 톱랭커의 위치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이들의 주 활동 무대 역시 유럽이다. 이러한 유럽의 당구 인프라에 대해 국내 선수의 말을 빌리면, "톱랭커들은 대부분 유럽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다. 매년 열리는 월드컵, 세계선수권에 나오는 선수들과 프로리그에서 자주 겨룬다. 그만큼 상대 스타일을 가까이서 분석할 수 있고 1년 내내 경기감각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선수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톱랭커는 커녕 우리끼리 경기하기도 쉽지 않다. 국제 대회에 나가야만 우수한 선수들과 겨룰 수 있다. 그마저도 토너먼트 형식의 경기에서 계속 이겨서 올라가야 한다."고 아쉬워하며, 국제 대회에서 성적을 거두는 것을 두고 '경험의 질'을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은 이제 당구 강국 대열에 들어섰으나 꾸준하게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선수권에서 우승을 하거나 월드컵에서 우승, 준우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토너먼트 형식의 경기에서 탈락을 하게 되어 순위권에 들지 못하면, 이내 국제대회의 참가 자격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상위권 당구선수들을 살펴보면 정식으로 체육학을 배웠다거나, 선수로서의 교육이나 트레이닝을 받아보지 않은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모두들 스스로 터득하거나 개발한 훈련법에 의해 연습하고, 대회를 준비하며 때로는 주변인



에게 당구를 강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눈부신 영광도 한때의 추억으로 지나가버릴 것이다. 현재 당구만을 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은 전국 통틀어 4명이다.

아래로는 스포츠로서의 당구가 명맥을 이어나가고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제 2 제 3의 김행직을 낳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시스템의 수립이 요구되며, 위로는 현재의 프로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랭커들과 겨룰 수 있는 대회시스템 및 랭킹 산정 제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4 터키 세계 3쿠션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조재호 선수는 한국 당구의 명맥을 잇는 학원스포츠와 유소년 육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프로화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프로 출범으로 당구산업 규모도 커지고 학원스포츠에도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 자연스레 프로리그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세계를 누비며 강호들과의 시합을 통해 느끼고 배우고 터득한 선수들의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을 바탕으로 한 거시적 당구발전 계획 또한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당구계의 최대 관심사이자 오랜 숙제였던 '당구장의 금연화'도 해결이 되었다. 밖으로는 선수들은 각종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 준우승, 4강 이상의 성적을 매번 거둬들이고 있다. 안으로는 통합 대한체육회의 발족으로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의 통합을 통한 국민들의 보다 나은 스포츠로의 참여 환경과 시스템이 정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구를 좋아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TV를 켜면 당구경기를 중계하는 채널을 만날 수 있고, 모바일 환경 속에서 좋아하는 선수의 경기모습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당구라는 스포츠가 더욱 우리 생활 속에 안전하고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구장에 유입될 새로운 고객들을 위한(아마도 여성들이 전폭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청소년이나 가족단위의 참여자들, 연인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존 고객들의 친절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존 고객들이란 당구가 오늘날 이처럼 양지로 나오기까지 꾸준히 당구를 사랑하고 당구를 즐겨오며, 당구가 스포츠로서 인정받기까지 참고 기다려 온 당구인 전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존 고객들, 당구인들이 행해야 할 친절한 노력이란 그리 어렵고 고생스러운 행동이 아니다. 우리말로 순화된 당구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 당구 경기에 임할 때 상대방을 대하는 예우, 함께 즐기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의 타인에 대한 배려 정도가 전부일 것이다.

교통문화를 보면 그 나라의 시민의식과 의식수준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막 뼈대가 형성되고, 올바로 자라기 시작하는 당구라는 종목에 어떠한 옷을 입혀 줄는지는, 새로 올 손님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구를 즐겨왔던 이들에게 달려있는 것이다.